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동행해 보니

거래 명세서 없어 원산지 확인 불가

고객 불신 불러 경기 되레 악화 우려

광주시내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상가의 원산지 표시는 아직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재래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8년 하반기로 벌써 10년째다.

26일부터 광주시내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관계자들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인식이 없고 있으나 이를 실제 이행하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추석(9월 14일)을 앞두고 농산물 도·소매점에는 도라지와 표고버섯, 고사리, 곰국, 대추 등 계수용품이 진열돼있고, 계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도 제법 북적였다.

농관원 전남지역 원산지조사계 '112 기동팀' 정영준(46) 팀장과 장천식(32) 주임 등 2명이 K상회를 찾았다. 추석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하기 위해서였다. 단속반은 우선 기관 대의 원산지와 품목명이 적힌 농산물 원산지 폼말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원산지 폼말 확인 후 비닐봉지에 담긴 표고와 쇠이버섯을 하나하나 들춰냈다. 원산지표시가 안된 제품이 발견됐다. 장 주임이 가게 주인에게 "왜 원산지표시가 안됐죠"라고 말한 뒤 단속 확인서를 꺼내자, 주인은 "다른 제품에 가져다 있는 바람에 잘 보이지 않아 표시를 하지 못했다. 다른 것은 다 돼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단속반

은 K상회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표고버섯 3kg과 쇠이버섯 1kg을 적발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오후 2시20분 또 다른 건물 물 도소매점인 T상회. 가게 주인은 "장사도 안돼 죽었는데, 또 단속을 나섰느냐"며 단속반을 향해 고함질렀다. 여 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관대에 놓인 250g 짜리 비닐봉지에 담긴 표고버섯을 뒤척거렸다.

봉지 표면에는 원산지가 '북한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가게는 비닐봉지에 담긴 1kg의 표고버섯을 S도매점에서 구입한 뒤 250g씩 4봉지로 나눠 팔고 있다. 여 팀장이 가게 주인에게 "제품 창고를 확인해 보니 북한산 표고는 없고 중국산만 있는데, 중국산산을 북한산으로 속여 판 것 아니냐"고 물으며 거래명세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품목과 수량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는 없었다. 재래시장 특성상 거래명세서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 또는 외상을 하기 때문이다. 단속반은 T상회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통과정을 역추적했으나 표고버섯을 구입한 S도매점에서도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농관원 여 팀장은 "재래시장의 경우 도·소매점 간 거래명세서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아 역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곧 손님들의 불신을 야기하며 재래시장의 경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로 손님을 내모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이 올들어 지난 25일까지 단속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183건, 미표시는 214건이며 건 적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억240만원이다. 허위표시가 112건, 미표시가 199건 적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와 7%씩 증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역 원산지 조사계 직원 5명이 26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내 한 계수용품 가게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하고 있다.

건수는 183건, 미표시는 214건이며 건 적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억240만원이다. 허위표시가 112건, 미표시가 199

추석 앞두고 강·절도 잇따라

추석명절을 20여일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편의점 강도와 차량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6일 새벽 광주시 동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모(45)씨의 캐논 스승용차 등 승용차 7대가 한꺼번에 탈린채 발견됐다. 김씨는 "출근하기 위해 차에 탔더니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1곳에서 일어난 절도 피해 차량은 대부분 차량 경보기가 달려있지 않은 구미한 지 오래된 승용차였고, 범인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과 디지털 카메라, MP3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찰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175cm 이 상의 키에 마른 체형의 20~30대 남성 두 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새벽 4시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모 편의점에 20대 초반 강도가 침입, 남작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현금과 디지털 카메라, MP3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찰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175cm 이 상의 키에 마른 체형의 20~30대 남성 두 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새벽 4시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모 편의점에 20대 초반 강도가 침입, 남작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안현주·강필상 기자 ahj@

"굴착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배상하라"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6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도인근 주택 소유자 29명이 광주시와 H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H건설은 원고 개인당 1천300만~9천100만여 원씩, 보수공사비 3억5천600만원, 복원공사비 7억5천만원, 가치감소액 4억9천500만원 등 총 1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하굴착공사 및 이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가 지반을 침하시켜 주변 건물을 균열하거나 기울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적절한 사전 조처를 게을리한 H건설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공회사인 H건설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H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4년 5월 20일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시회사로부터 순환도로 4구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수주, 2006년 6월 30일까지 광산구 신가동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했나 주변 건물주들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기울기 573분의 1~52분의 1가량 기울어졌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6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도인근 주택 소유자 29명이 광주시와 H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H건설은 원고 개인당 1천300만~9천100만여 원씩, 보수공사비 3억5천600만원, 복원공사비 7억5천만원, 가치감소액 4억9천500만원 등 총 1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하굴착공사 및 이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가 지반을 침하시켜 주변 건물을 균열하거나 기울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적절한 사전 조처를 게을리한 H건설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공회사인 H건설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H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4년 5월 20일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시회사로부터 순환도로 4구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수주, 2006년 6월 30일까지 광산구 신가동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했나 주변 건물주들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기울기 573분의 1~52분의 1가량 기울어졌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중생·동거녀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

목포경찰청은 26일 전북 군산 여중생과 동거녀 등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모(33·전북 군산시)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경 전북 군산시 장미동 내항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H달 가게 종업원 친구의 여동생 전모(15)양을 강간하려고 미수에 그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6일 목포시 상동 목포교육청 인근 도로에서 동거녀 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는 전양이 숨진 채 발견됐고, 25일 영암군 삼호읍 나뭇길 선착장에서는 정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정부지원금 유용 혐의 사회적기업 대표 영장

광주북부경찰청은 26일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유용한 사회적기업 A업체 대표 한모(34)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광주지방노동청 산하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 9억5천만 원 중 일부를 개인 및 개인에게 사용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9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가게를 임대하고 영의를 변경해 주다가 하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국고 지원금에서 충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원침 (7593) 김경두



다 좋은 건국·산업투자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사무소: 02) 3445-0943

사무소: 06) 337-0571

“내 내연녀 왜 만나” 차량 파손



○40대 남성이 자신과 사귀는 내연녀를 만나는 이유로 상대 남성의 차량을 파손하다 경찰서행.

○곡성경찰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21일 밤 11시20분경 곡성군 모 마을 앞에서 B(51)씨의 1t 화물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내고 브레이크 오일 호스까지 자르는 등 두차례에 걸쳐 차량을 파손했다는 것.

○유부남인 A씨는 B씨의 차량을 파손하던 중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의 진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와 사귀는 여자를 몰래 만나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자른 사실을 모르고 B씨가 차량을 운전했다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해를 꼽았다.

“종교 편향” 항의 오늘 범불교도대회

광주·전남 4천여명 상경 규탄

국내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에 항의해 27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이하 범불교도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4천여명의 승려와 불교 신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전남 불교계에 따르면 승려들과 신도들은 광주불교사찰연합회를 비롯, 순천 송광사,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등 각 사찰별로 모여 전세버스 편으로 상경, 범불교도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종교 차별행위를 규탄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불교계는 오는 9월 초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행위 감시를 위한 '범불교 광주·전남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 광주불교인 대책회의 사무국장 박선수(분민정사 주지)는 "오랜동안 수시지방의 '엑스포는 하나님의 선물' 발언 등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종교 차별 행위가 빈발하고 있고"며 "범불교대책위가 꾸러지는 대로 종교차별행위 감시를 비롯해 정권의 인권탄압, 공기영 민영화 등 보수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령법률경매
T: (062) 225-2665 H, P: 011-605-7777 위치: 법원정문앞

지역	소제지	인근	토지/건물(㎡)	남지	권평가	최고가
사구	충남 동천향교	388/1,908	21㎡	79㎡	192㎡	72㎡
	충남 대흥향교	1,877,647	144,872㎡	80,427㎡	80,427㎡	191㎡
	충남 대흥향교	254,988	2,919㎡	84㎡	2,919㎡	84㎡
	충남 대흥향교	215,498	49,427㎡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560,253	14,827㎡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165,139	1,842㎡	84㎡	84㎡	84㎡
	충남 대흥향교	201,441	3,927㎡	19,739㎡	19,739㎡	19,739㎡
	충남 대흥향교	328,572	89㎡	3㎡	3㎡	3㎡
	충남 대흥향교	281,851	89㎡	19,817㎡	19,817㎡	19,817㎡
	충남 대흥향교	883,562	5,949㎡	2,919㎡	2,919㎡	2,919㎡
남구	충남 대흥향교	100,132	2,919㎡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156,239	1,981㎡	7,233㎡	7,233㎡	7,233㎡
	충남 대흥향교	158,269	1,981㎡	7,233㎡	7,233㎡	7,233㎡
	충남 대흥향교	235,536	3,927㎡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419,850	89㎡	6,927㎡	6,927㎡	6,927㎡
	충남 대흥향교	169,239	2,919㎡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204,556	5,949㎡	3,927㎡	3,927㎡	3,927㎡
	충남 대흥향교	308,728	4,939㎡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201,295	2,919㎡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88,748	7,233㎡	3,927㎡	3,927㎡	3,927㎡
군산	충남 대흥향교	407,685	12,917㎡	5,949㎡	5,949㎡	5,949㎡
	충남 대흥향교	557,197	19,817㎡	19,817㎡	19,817㎡	19,817㎡
	충남 대흥향교	210,615	4,939㎡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54,919	3,927㎡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1,292,519	1,981㎡	6,927㎡	6,927㎡	6,927㎡
	충남 대흥향교	803,948	3,927㎡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908,758	2,919㎡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1,446,438	3,927㎡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407,685	1,981㎡	8,927㎡	8,927㎡	8,927㎡
	충남 대흥향교	229,519	7,233㎡	2,919㎡	2,919㎡	2,919㎡
여주	충남 대흥향교	201,441	3,927㎡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189,231	2,919㎡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219,398	2,919㎡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187,046	1,981㎡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292,282	3,927㎡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311,491	3,927㎡	2,919㎡	2,919㎡	2,919㎡
	충남 대흥향교	188,207	2,919㎡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291,729	1,981㎡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135,699	1,981㎡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165,172	1,981㎡	1,981㎡	1,981㎡	1,981㎡
충남	충남 대흥향교	344,789	2,919㎡	7,233㎡	7,233㎡	7,233㎡
	충남 대흥향교	182,799	8,927㎡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251,723	1,981㎡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319,729	3,927㎡	1,981㎡	1,981㎡	1,981㎡
	충남 대흥향교	360,723	4,939㎡	3,927㎡	3,927㎡	3,927㎡
	충남 대흥향교	258,723	4,939㎡	3,927㎡	3,927㎡	3,927㎡
	충남 대흥향교	388,789	1,981㎡	8,927㎡	8,927㎡	8,927㎡
	충남 대흥향교	181,218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453,182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532,113	7,233㎡	4,939㎡	4,939㎡	4,939㎡
충남	충남 대흥향교	162,146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828,119	5,949㎡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650,785	5,949㎡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502,292	5,949㎡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370,729	9,927㎡	5,949㎡	5,949㎡	5,949㎡
	충남 대흥향교	553,182	5,949㎡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360,723	4,939㎡	3,927㎡	3,927㎡	3,927㎡
	충남 대흥향교	258,723	4,939㎡	3,927㎡	3,927㎡	3,927㎡
	충남 대흥향교	388,789	1,981㎡	8,927㎡	8,927㎡	8,927㎡
	충남 대흥향교	181,218	7,233㎡	4,939㎡	4,939㎡	4,939㎡
충남	충남 대흥향교	486,743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181,218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453,182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532,113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162,146	7,233㎡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828,119	5,949㎡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650,785	5,949㎡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502,292	5,949㎡	4,939㎡	4,939㎡	4,939㎡
	충남 대흥향교	370,729	9,927㎡	5,949㎡	5,949㎡	5,949㎡
	충남 대흥향교	553,182	5,949㎡	4,939㎡	4,939㎡	4,939㎡

월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8월 30일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 사원모집 • 공인중개사 환영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제1기 개강 및 입학안내

- 1 모집과정: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 2 모집인원: 60명
- 3 입학전형: 서류전형
- 4 접수기간: 2008. 8. 1 ~ 9. 3
- 5 개강일: 2008. 9. 3(수) 오후 7시
- 6 수업기간: 1년(2008. 9 ~ 2009. 6)
- 7 수업시간: 수요일 19:00~22:00
- 8 교육장소: 호남대학교 학생동 캠퍼스
- 9 원서접수: 홈페이지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부동산 경영과정
- 10 입학안내: TEL: (062)381-4986, (062)370-8336 FAX: (062)370-8161
- 11 모집대상: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검정평가사등 부동산 유망직종, 관사, 겸사, 변호사 등 법조계종사자,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근무, 건설업체의 임직원, 사공, 시행, 컨설팅 및 분양사업자등, 부동산(FA)리스 회사, 개발 법인 & 정비사업조합의 임직원, 부동산 제테크 희망자 기타 부동산 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및 기업의 간부
- 12 교육특전: 호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종합 시험합격자는 부동산 겸사 자격인증서 수여
호남대학교 행정 대학원 총동료회 가입자격 부여
호남대학교 경제최고 전문가과정 수료자 100% 할인
부동산 중개사 및 호남대학교 등원 10% 할인

전국 최고의 교수진 출강!!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국 부동산경매사업협의회 후원